

# “힘들어도 전통 잇기 자부심...모두가 달달한 설 뒀으면”

## 담양 창평 쌀엿공장 '모녀 삼대'의 설맞이

“주-옥 늘어나는 쌀엿처럼 새해에는 코로나 이겨내고 살림도 늘려 부자되시고 오래사세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쌀엿공장 '모녀삼대' 공방은 꼬박 하루 걸려 만들고 있는 달달한 옛 냄새가 진동했다.

엄마 윤영자(82)씨에게 쌀엿 만드는 비법을 배운 최영례(50)가 아궁이를 떠나지 않고 지킨 지도 벌써 수 시간째다.

조절이 될 때까지 가마솥에서 졸이는 시기에 잠시 한눈이라도 팔았다가는 금세 넘쳐 버리기 때문이다. 색깔이 누런 썩으로 변할 때까지 4~5시간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엿을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이틀, 48시간이 걸린다는 게 윤 할머니와 최씨 말이다.

한나절 이상 불려 놓은 쌀이 고두밥을 찐고 엿기름과 섞은 뒤 이불을 둘러 씌워 10시간 가량 발효시켜 식해를 만든다. 식해가 완성되면 물과 찌꺼기를 분리하는데, 이른바 '엿밥'을 짜내는 과정이다. 그 다음엔 조절이 될 때까지 가마솥에서 졸인다.

이때 아궁이에서 장작을 때 중간 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보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이렇게 4

재료 준비부터 정성 듬뿍 담고

장작불 가마솥 끊임없이 저어줘

좋은 엿 만들려면 꼬박 이틀 걸려

“새해 쌀엿 먹으면 살림 늘고 장수

코로나에 손님 줄어 고민이지만

엿 방식 고수...전통 계승해야죠”

시간 가량을 고면 색깔이 누런 썩으로 변해간다. 이후부터는 엿을 만드는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썩의 상태가 무르지 된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나무주걱으로 끊임없이 저어줘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날라가고 점도가 생길수록 '주걱질' 하는 게 힘들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시기를 놓치면 엿이 질겨지는 만큼 '오줌이 마려워도 참아야 한다'는 게 최씨 이야기다.

나무주걱으로 한 움큼 땀을 때 일직선으로 곱게 흘러내리면 좋은 상태라고 한다. 식힌 썩을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이 100번 가량 잡아당겨 바람(수증기) 넣는 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흰 쌀엿'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쌀엿은 먹을 때 바삭바삭해 입안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 먹고 나서도 입 안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최씨는 “비가와 습도가 높거나 너무 더운 날에는 엿 맛이 떨어진다”면서 “춥고 건조한 12월부터 2월에만 엿을 만드는 게 이 때문”이라고 했다.

예전 어머니 윤영자씨가 옛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새벽 2시부터 작업을 했다고 한다. 과거 쌀이 귀해 정부가 엿을 만들지 못하게했던 시절에 하던 버릇 때문이라고 했다.

흰 쌀이 고두밥을 시작으로 붉으스름한 조절, 검은빛이 도는 썩을 거쳐 다시 흰 쌀엿이 되기까지 48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물론, 쌀엿에 들어가는 재료(쌀·엿기름·생강·참깨)까지 직접 키워 만드는 것을 포함하면 '일년 농사'나 다름없다. 그나마 대부분의 과정이 일일이 사람 손을 타야 하는 고된 노동이다보니 엿가락을 길게 뽑아내려는 사람들도 찾기 힘들어졌고 가족에게도 선택 받지 못했다.

최씨가 최근 엄마를 돕겠다고 나선 딸 김정희(26)씨를 대견해하는 이유다. 김씨는 우선 홍보와 택배 등의 부수적인 일을 돕고 있다.

최씨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데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뭇 섭섭하다고 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때다보면 그늘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식품위생법만 강조하면 서운하다”고 했다.

힘들게 작업한 엿을 줄 서서 사가는 고객을 보는 맛도 '코로나19'로 사라지면서 기운도 빠진다고 한다.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이 집 엿 덕에 우리 아들이 최연소 공무원에 딱어 붙었다니까요” 등의 말을 듣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이마저도 들기 힘들어졌다는 것.

창평쌀엿은 조선 세종의 만행인 양녕대군이 창평 지역에 낙향해 지낼 때 동행한 궁녀들이 아나네들에게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설 명절 즈음이면 엿을 만드는 냄새로 온 마을이 '달달'했고 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쌀엿을 선물로 드렸다고 한다. 최씨는 “쌀엿을 새해에 먹으면 1년 내내 살림도 늘어나고 오래 산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우선 홍보와 택배 등의 부수적인 일을 돕고 있다.

최씨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데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뭇 섭섭하다고 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때다보면 그늘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식품위생법만 강조하면 서운하다”고 했다.

힘들게 작업한 엿을 줄 서서 사가는 고객을 보는 맛도 '코로나19'로 사라지면서 기운도 빠진다고 한다.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이 집 엿 덕에 우리 아들이 최연소 공무원에 딱어 붙었다니까요” 등의 말을 듣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이마저도 들기 힘들어졌다는 것.

창평쌀엿은 조선 세종의 만행인 양녕대군이 창평 지역에 낙향해 지낼 때 동행한 궁녀들이 아나네들에게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설 명절 즈음이면 엿을 만드는 냄새로 온 마을이 '달달'했고 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쌀엿을 선물로 드렸다고 한다.

최씨는 “쌀엿을 새해에 먹으면 1년 내내 살림도 늘어나고 오래 산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우선 홍보와 택배 등의 부수적인 일을 돕고 있다.

최씨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데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뭇 섭섭하다고 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때다보면 그늘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식품위생법만 강조하면 서운하다”고 했다.

힘들게 작업한 엿을 줄 서서 사가는 고객을 보는 맛도 '코로나19'로 사라지면서 기운도 빠진다고 한다.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이 집 엿 덕에 우리 아들이 최연소 공무원에 딱어 붙었다니까요” 등의 말을 듣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이마저도 들기 힘들어졌다는 것.

창평쌀엿은 조선 세종의 만행인 양녕대군이 창평 지역에 낙향해 지낼 때 동행한 궁녀들이 아나네들에게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설 명절 즈음이면 엿을 만드는 냄새로 온 마을이 '달달'했고 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쌀엿을 선물로 드렸다고 한다.

최씨는 “쌀엿을 새해에 먹으면 1년 내내 살림도 늘어나고 오래 산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우선 홍보와 택배 등의 부수적인 일을 돕고 있다.

최씨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데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사뭇 섭섭하다고 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때다보면 그늘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식품위생법만 강조하면 서운하다”고 했다.

힘들게 작업한 엿을 줄 서서 사가는 고객을 보는 맛도 '코로나19'로 사라지면서 기운도 빠진다고 한다.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이 집 엿 덕에 우리 아들이 최연소 공무원에 딱어 붙었다니까요” 등의 말을 듣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이마저도 들기 힘들어졌다는 것.

창평쌀엿은 조선 세종의 만행인 양녕대군이 창평 지역에 낙향해 지낼 때 동행한 궁녀들이 아나네들에게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상품으로 올릴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설 명절 즈음이면 엿을 만드는 냄새로 온 마을이 '달달'했고 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쌀엿을 선물로 드렸다고 한다.



담양 창평 쌀엿의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모녀삼대인 윤영자, 최영례, 김정희씨(아래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영례씨가 쌀엿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가마솥에서 8시간 동안 끓여서 만든 썩을 옮겨 담고 있다.

## 설명절 주·야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 특별교통관리대책

귀성·귀경길 안전사고 예방 나서

설 명절에도 주·야간 구분없이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설 명절 특별교통관리대책을 내놓았다.

9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설 명절, 460여명(광주 132명, 전남 330명)의 경찰과 순찰

차와 대형오토바이 등을 투입,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및 안전 사고 방지에 나선다.

경찰은 귀성 시작일인 10일부터 귀경이 마무리되는 14일까지 광산·서광주 IC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버스터미널(유스퀘어), 송정역, 공원묘지에서 소통 위주 교통 관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3대), 경찰헬기(1대)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 운전 등 위험행위와 길주행 등 암행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또 좋은운전 취약 시간대에는 알람순찰 및 취약구간 실시간 순찰 등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전남 전통시장 70곳·대형마트 주변 도로 교차로 진·출입로의 이중 주차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코로나에도 주·야간 구분 없이 20~30분씩 장소를 옮겨가며 스포츠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친지와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면서 “귀가와 장시간 운전 시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전 좌석 안전띠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를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이렇게 공식이 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적emics 인물들을 앉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현장 지원’을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국급 공무원들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이미 내정된 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서류 심사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동일한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제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전년보다 10% 감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 중인 최근 2개월 동안 광주·전남·제주 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 제주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기록했다.

3년 평균과 비교하면 22% 감소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광주 23㎍/㎥, 전남 17㎍/㎥, 제주 13㎍/㎥로 측정됐다.

전남도 대비 광주 8%, 전남 11%, 제주 24% 줄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광주 16일, 전남 29일, 제주 44일이다.

전년도 대비 광주 3일, 전남 10일, 제주 13일 증가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36㎍/㎥ 이상인 ‘나쁨’ 일수는 광주 9일, 전남 1일, 제주는 0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광주 4일, 제주 2일 감소했고 전남은 동일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2월”이라며 “계절 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광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0타경 12576	1	광산구 소촌로152번길5, 202동 11층 1102호 [소촌동, 스위트밸리2차아파트] 84,9831㎡		아파트	200,000,000	200,000,000	
2020타경 13043	1	서구 내방로343번길19, 7층 704호 [화정동, 금호하이빌] 52,314㎡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2020.11현재관리비약300,000원미납 상태]		아파트	69,000,000	69,000,000	
2020타경 60964	1	광산구 비야로62번길12, 108동 9층 902호 [도천동, 중흥아파트] 59.76㎡		아파트	85,000,000	2020타경62182 [중흥아파트] 85,000,000	
2020타경 73694	1	광산구 수동로205, 203동 9층 903호 [신기동, 신기2차리전시발아파트] 84,0624㎡		아파트	230,000,000	230,000,000	
2020타경 73847	1	북구 우지로537번길10, 102동 23층 2304호 [일곡동, 동아아파트] 99.86㎡		아파트	260,000,000	260,000,000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2020.8부터 관리비미납상태
2020타경 74710	1	서구 화개1로24번길10, 101동 19층 1904호 [금호동, 동양부영1차아파트 [마재마을]] 80,1864㎡		아파트	227,000,000	227,000,000	

● 공판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대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기 민사집행법 제140조제1항의 부속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상환되는 경우 그 공유지기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2. 매각기일: 2021. 2. 25.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1. 3. 4. [목]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매각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 이외의 기밀입찰 또는 서면입찰,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남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공표기간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계약서를 제출한 문서 [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광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0타경 74130	1	곡성군 오곡면 송림길 98-3 83㎡ [채시외]		단독주택	55,637,000	55,637,000	일괄매각, 건물현황 127-1소재, 채시외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73168	1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731-3 349㎡ [현황 전]		전	8,131,700	8,131,7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0타경 12132	1	서구 시청로96번길12, 3층 301호 [지평동, 오피스텔]		오피스텔	212,000,000	212,000,000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명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과반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격의 인수하여서는 불가하며, 최고가격의 인수여부 및 입찰인수의 유무는 그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④ 최고가격대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즉시 반환한다.
- ⑤ 매각자가 및 대금납부
- ⑥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매각결정일 때 매각자가 매수자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각결정일 때 매수자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종상 매각결정일 때 매수자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종상 매각결정일 때 매수자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종상 매각결정일 때 매수자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소유권이전 및 인도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담보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절기 및 지정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비용 지급과 함께 매수인 또는 등록비용을 납부한 후 등록비용수납확인서 및 등록비용수납영수증과 함께 납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탁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등기를 수취하여야 한다.
- ⑨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⑩ 주의사항 또는 상기내용에 최선순위의 부담 등이 설명된 날로부터 한지 주된명절전일까지 매각이 거취하고 있는 입찰자나, 사업 자부담비용을 마친 입찰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결과를 매수인이 인수하여서는 불가하며, 최고가격의 인수여부 및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⑪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⑫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⑬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⑭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⑮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⑯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⑰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⑱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⑲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⑳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㉑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㉒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㉓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㉔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㉕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㉖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㉗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㉘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㉙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㉚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㉛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㉜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㉝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㉞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㉟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㊱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㊲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㊳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㊴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㊵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㊶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㊷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㊸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㊹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㊺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㊻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㊼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㊽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㊾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㊿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입찰인수의 유무는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021. 2. 1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신호